

프로야구 시범경기 오늘 막 오른다

광주 등 5개 구장서 개막
24일까지 총 60경기
피치클록 2초 단축 적용

2026 KBO리그의 시작을 알리는 KBO 시범경기가 오는 12일 오후 1시 이전(키움-두산), 대전(삼성-한화), 광주(SSG-KIA), 사직(KT-롯데), 마산(LG-NC) 5개 구장에서 막을 올린다.

1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24일까지 팀당 12경기씩 총 60경기가 치러지며, 연장전과 더불어는 실시되지 않는다.

시범경기에는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을 맞아 새롭게 바뀐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

피치클록은 투구 간격을 전전 대비 2초 단축해 주자 없을 시 18초, 주자 있을 시 23초로 줄었다.

지난 시즌 중간에 도입된 체크스윙 비디오 판독(팀당 2회, 번복 시 기회 유지)은 올해도 시행되며, 2루와 3루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오버런도 비디오 판독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1·2루심은 비디오 판독 소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무선 인터컴을 착용하고 경기를 치른다.

새로운 부상자 명단 규정도 적용된다. 각 구단은 시범경기 개막일 이후 경기 및 훈련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개막전 엔트리 공시 3일 이내에 해당 선수의 부상자 명단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KBO리그는 2년 연속 1,000만 관중 돌파 역대 최대 관중 신기록(1,231만 2,519명)을 경신한 지난해 시범경기부터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다.

총 42경기에 32만 7,763명의 관중을 동원해 역대 시범경기 최대 관중 신기록을 세웠다. 경기당 평균 관중도 7681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결승 진출... 2026 동계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백혜진(오른쪽)과 이용석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페초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미국과의 준결승전에서 하이퍼리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명으로 역시 역대 최대 기록을 작성했다.

시범경기는 1983년부터 열렸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2020년을 제외하고 매 시즌 개최됐다.

역대 시범경기 1위팀이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한 경우는 총 6차례 있었다(1999-2000 알타리도 제외). 1987년 현대, 1992년 롯데, 1993년 현대, 1998년 현대, 2002년 삼성, 2007년 SK가 시범경기에서 1위에 오른 후 여세를 몰아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이뤄냈다.

지난 시즌 시범경기에서 타율 0.407을 기록하며 타율 1위에 올랐던 오명진(두산)은 정규시즌에서도 활약을 이어갔다. 107경기에서 나와 팀 내 2루수 최다 수비이닝(488이닝)을 책임졌고, 타율 0.263 4홈런 41타점을 남기며 두산 내야의 미래로 거듭났다.

투수 부문에서는 폰세(전 한화)가 시범경기 2경기에 출전해 2승, 9이닝 무실점으로 다승 및 평균자책점 공동 1위에 올라 정규시즌 활약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폰세는 이어진 페넨트레이스에서 29경기 17승 1패 262탈삼진 평균자책점 1.89를 남기며 투수 4관왕(다승·탈삼진·평균자책점·승률)에 올랐다. KBO리그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신기록과 함께 시즌 MVP와 투수 골든글러브까지 휩쓸었다.

2026 KBO 시범경기는 구장에서 직접 관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개 스포츠 케이블 채널(KBSN스포츠, MBC 스포츠플러스, SBS스포츠, SPOTV, SPOTV2) 및 OTT 플랫폼 TVING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뉴시스



'제28회 한국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 남녀펜싱선수권대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다. (사진=무주군청 제공)

전국 실업 펜싱 선수들 '집결'

14일까지 무주서 실업펜싱연맹회장배 전국 대회
전국 167명 참가... 플뢰레·에페·사브르 종목 열전

전국 실업 펜싱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는 '제28회 한국실업펜싱연맹 회장배 전국 남녀펜싱선수권대회'가 11일 무주에서 막을 올렸다. 대회는 오는 14일까지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며 전국 39개 팀 남녀 선수 167명이 참가해 플뢰레와 에페, 사브르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개회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김철호 한국실업펜싱연맹 회장(재경무주군민회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선수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회는 실업 펜싱 선수들의 경기력을 평가하고 펜싱 종목의 저변 확대와 지역 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한국실업펜싱연맹이 주최하고 한국실업펜싱연맹과 전북특별자치도 펜싱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무주군이 후원한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자연복합 무주에서 펜싱 선수들의 열정과 실력을 펼칠 수 있어 뜻깊다"며 "그동안 준비한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K-스포츠 관광 중심지로서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이번 펜싱선수권대회를 비롯해 무주비트볼배 하프마라톤 대회(3월 29일), 무주덕유산 MTB 전국 자전거대회(5월 10일), 현정화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5월 16~17일), 축구코리안리그(5월 2일~11월 29일),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5월 23~26일), 교보생명컵 꿈나무탁구대회(7월 31일~8월 4일) 등 총 27개 전국·도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을 개최할 예정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이창호 국수, 전북체육역사박물관 조성 동참

한국 바둑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이창호 국수(9단)가 전북체육역사박물관 조성 위해 소장품 기증에 동참했다.

11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전주 출신인 이창호 국수가 최근 전북체육역사박물관 조성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소장품을 기증했다.

이창호 국수는 평소 대국 전 연습에

바둑관·바둑알 등 대국 관련 소장품 전북체육회에 기탁

사용했던 바둑판과 바둑알을 비롯해 선수단 단복, 손잡이 등 개인 소장품을 전달했다.

전북체육회는 당초 기증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국수가 이를 정중히 사양함에 따라 서울에서 직접 소장품을 전달받았으며 감사의 뜻을 담아 기증서를 전달했다.

이창호 국수는 어린 시절 조훈현 국수의 제자로 바둑계에 입문했다. 1989년 국내 최연소 타이틀을 획득했고 1991년에는 세계 최연소로 세계 타이틀을 차지하며 한국 바둑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이후 국내 16개 기전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하고 최다관왕 기록을 세우는



등 한국 바둑사에 굵직한 기록을 남겼으며 최단기간 9단 승단 기록도 세웠다.

또 작년 12월에는 봉산 198승을 기록하며 스승 조훈현 국수가 보유하고 있던 198승을 넘어 한국 바둑 역사상 최다승 기록을 새로 쓰기도 했다.

이창호 국수는 "체육역사박물관 건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동계스포츠 지평 넓혀" ... 이 대통령, 패럴림픽銀 김윤지에 축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 은메달을 추가한 김윤지 선수에게 축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애슬론 금메달을 차지한 김윤지 선수가 크로스컨트리 여자 스피리트 좌식 종목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며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성과로 대한민국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을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경신했다"며 "이재부

터 우리 선수단이 패는 메달 하나하나가 곧 새로운 역사가 된다. 특히 이번 은메달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대한민국 크로스컨트리 여자 선수 사상 최초 메달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 기량으로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김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뉴시스

